

# 광주은행, 전국 유일 '횡령 제로'... 통제 시스템 재조명

### 윤리 교육·감사 등 내부 시스템·임직원 통제 매뉴얼 비결 꼽아 경남·부산銀 등 최근 7년간 202명에 피해액 1816억원에 달해

최근 고객의 돈을 손댄 금융기관 종사자의 비위가 잇따르면서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광주은행이 횡령 사건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유일한 은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 향토은행 광주은행의 철저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재조명받는 것은 물론, 고객과의 신뢰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는 202명, 횡령 금액은 1816억5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89억8870만원(45명)→2018년 56억6780만원(37명)→2019년 84억5870만원(27명)→2020년 20억8290만원(31명)→2021년 156억4860만원(20명)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2년 826억8200만원(30명)→

2023년 7월까지 580억7630만원(12명)으로 횡령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이 113명(56.0%)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보험 59명(29.2%), 증권 15명(7.4%), 저축은행 11명(5.5%), 카드 4명(2.0%) 순이었다.

횡령한 금액 규모 역시 은행이 1509억8010만원(83.1%)에 달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저축은행 169억2180만원(9.3%), 증권 86억9600만원(4.8%), 보험 47억4200만원(2.6%), 카드 2억6600만원(0.2%) 순이었다.

조사 기간 중 가장 많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은행은 하나은행이었다. 올해만 2건이 발생해 총 21건에 횡령액 74억4100만원을 기록했다. 우리은행은 12건이 발생했지만, 횡령액만 놓고 보면 733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은행들도 횡령 사건이 잦았는데, 최근 부장급 직원이 비위를 저지른 경남은행이 562억5000만원(4건)을 기록했다. 이어 대구은행 2억2400만원



고병일 광주은행장



송중욱 JB금융지주 부회장

(4건), 전북은행 3억300만원(3건), 제주은행 22억800만원(2건), 부산은행 15억8800만원(2건)이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 중 유일하게 광주은행만 횡령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은행은

룩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송 부회장은 고객의 자산을 취급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금융업 종사자의 권한과 책임, 윤리적 정결을 강조했다. 후임인 고병일 은행장은 이를 더욱 강화해가고 있다.

당장 고 행장은 올해 초 취임사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기부'를 강조하면서 이에 입각한 '정도영입'과 함께 100년 은행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결과 도덕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직무연수를 통한 주기적인 윤리교육 ▲금융사고 취약 업무 인력 보강 및 절차 고도화 ▲자점감사 전담역 배치를 통한 실질적인 감사 실시 ▲준법감시인 권한 강화 ▲장기근속 및 위험직무근무자 순환배치 등을 지속 추진 중이다.

고병일 은행장은 "금융업 종사자들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중한 자산을 취급하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 도덕적 책임과 윤리적인 직업의식을 갖추고 투명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안정성이 검증된 내부 통제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전 임직원들이 서로 협조해 고객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축산농협, 최고 6% 예·적금 특판

### 적금 200억·예금 300억 한도

광주축산농협은 10일부터 최고 6%의 고금리 예·적금 특판을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정기적금 200억원, 정기예금 300억원 한도로 판매된다.

정기적금은 9개월 만기, 최대 6% 금리로 월 납입액은 10만~50만원이며, 1인 2계좌까지 가입 가능하다.

정기예금은 6개월 만기, 최대 4.5% 금리로 두 상품 모두 한도 소진 시 판매가 종료된다.

이번 특판은 광주시내 금융기관 중 최고 수준 금리로, 우대금리 또한 까다롭지 않다. 쿠팡닷컴 및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두가지만 가입해도 최고 금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간소화 했다.

김호상 조합장은 "광주축산농협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조합원과 고객 여러분께 뜻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번 특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보답하는 경영을 통해 고객이 더 만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농협 광주본부 '찾아가는 법률 상담' 운영

### 농업인 150명 대상 소비자 보호 교육 등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9일 '찾아가는 농협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지역 농업인 150여명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 및 소비자 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농협 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는 법률·소비자·정보통신 등 분야를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상담, 교육하는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이다.

농협은 대한법률구조공공단과 한국소비자원 소속 전문 강사를 초청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농지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등 생활법률 강의와 개별상담 신청을 통한 1대 1 법률상담을 했다.

또 고령층을 노린 소비자 피해사례와 보이스피

싱 예방법을 교육했다.

매년 운영되고 있는 농협 광주본부 '찾아가는 농협 이동상담실'은 다양한 사례 설명과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성신 본부장은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법률 및 소비자 보호 교육을 통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농협광주본부 통합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과 고충해결을 위해 법률상식 강의 등 농업인 실익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농협 전남본부, 소외이웃 '삼계탕 나눔'



### 구례 양정마을 등 방문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지난 8일 구례축협,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전남도지부와 함께 '행복한 여름나기,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말복(8월 10일)을 앞두고 경중농가와 폭염에 지친 취약계층의 기력회복을 돕고자 마련됐다.

이날 전남농협은 구례 양정마을(120인분)을 비롯한 구례지역자활센터(200인분), 구례군장애인복지관(180인분)을 찾아 삼계탕을 전달했다.

박종탁 본부장은 "집중호우가 끝난 후 시작된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라고 기력회복에 좋은 삼계탕을 준비했다"며 "살기 좋은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축산운동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임지선(왼쪽 다섯번째) 보해양조 대표가 김영록(왼쪽 세번째) 전남도지사과 함께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협약체결 및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이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보해양조 제공)

## 보해, 전국체전 성공 위해 함께 뛰다

### 포스터 제작·익새주 QR코드로 체전 안내...인재 양성 기금도

보해양조(대표 임지선)가 오는 10월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보해양조는 8일 전남도청에서 임지선 대표이사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및 기관 주요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보해는 전남 각 시·군의 특산품을

소재로 경기종목을 소개하는 전국체전 포스터를 제작, 경기가 열리는 지역 식당 등 업소에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친다. 총 49종의 포스터를 제작해 지역 내 2만여개 음식점에 부착한다는 게 보해의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는 전국체전을 알리는 홍보 문구가 부착된 익새주 300만병이 광주·전남지역에 유통한다. 익새주 후면에 QR코드를 넣어 전국체전이

언제 어디서, 어떤 종목이 열리는지 손쉽게 확인해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밖에 전국체전에 참여해 지역체육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위한 성금도 기탁했다. 보해양조는 체육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0만원을 전남인재평생교육원에 이날 기부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시도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포스터와 기부금 기탁 등을 결정하게 됐다"며 "전남에서 열리는 체전이 지역민의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기아 오토랜드 광주

### 청소년 꿈 설계 후원

### 초·중생 소방관 체험·공장 견학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장 박래석)는 9일 지역사회 보육시설 청소년들의 미래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청소년 꿈 설계 프로그램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 꿈 설계 프로그램은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2차수에 걸쳐 진행,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선정된 지역사회 보육시설 청소년 60명이 참여했다.

첫날 1차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30명의 초등학생이 사전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된 소방관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광주시 북구에 위치한 빛고를 안전체험관에서 진행된 소방관 체험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은 직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산악안전체험, 호우안전체험에 참여하며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2차수에는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기아 광주 교육센터에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사전에 진행된



박치용 기아 오토랜드 광주 1공장장 등 기아 관계자들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본부에 청소년 직업 및 진로 탐색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기아 제공)

진로적성 연구 대표기관 한국진로적성센터의 온라인 적성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1대 1 진로컨설팅에 참여해 자신을 종합적으로 이해, 적성에 적합한 진로를 설계했다.

이밖에 기아 오토랜드 광주 2공장 견학을 통해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배우고 미래자동차에 대한 특강을 들었으며, 직업체험 시간에는 로봇공학자 체험, 드론 체험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편,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이번 꿈 설계 프로그램을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본부에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직업체험과 진로설계가 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자립

및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05.12 (+31.14)
↑ 코스닥	908.98 (+16.64)
↑ 금리(국고채 3년)	3.670 (+0.023)
환율(USD)	1315.70 (0.00)